

研究論文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
-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구술생애사 -

염 미 경**

I. 문제제기	IV.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전쟁기억과
II. 연구배경과 조사과정	전쟁 이후의 생존전략
III. 여성의 결혼, 남편 그리고 가족	V. 맺음말

I. 문제제기

최근 들어 지방사회 연구에서 지방공동체의 정치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인구변동, 경제발전, 문화가치 및 생활문화의 변동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방사회와 지방민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왔고 변화해왔는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헌자료만으로는 지방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수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지방민의 생활문화나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것은 대부분 문헌자료로 남아있지 않고, 일제시대나 전쟁 당시의 문서자료도 부족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의 대다수가 관변 측 자료이며, 그러한 자료마저 일본이나 미국 혹은 러시아에 소장되어있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지 않은 역사자료를 수집해 지역사 혹

* 유익하고 세밀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사회학 전공

은 지방사를 재구성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새로운 대상은 바로 생활사 분야이며, 이를 위해서는 구술자료와 같은 자료원(資料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¹⁾ 인류학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서구의 구술사이론이 소개되면서 현지조사에 기초한 구술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생활문화사나 일상생활사에 대한 서술도 함께 진행되었다.²⁾ 구술사연구는 여성연구에도 적극 수용되었는데, 여성의 경험에 대한 구술생애사³⁾적 접근이 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한국전쟁 연구의 필요성도 커졌으며, 개인적 구술증언과 생애사, 가족사를 통해 한국전쟁과정을 재구성하고 지방민들의 역사이해를 살펴보려는 시도들이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내에서 수행되어왔다.⁴⁾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여성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여성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성원으로서 그리고 마을성원으로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개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젠더(gender)와 마을 차원에서 한국전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이 여성의 구술생애사에 주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 속에는 특정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증언이 포함되기도 하며, 비록 개인적 기억에 의존한 것이지만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기억한 것이므로 구술증언과 마찬가지로

1) 이해준, 「근현대 지방사료 수집의 방향과 과제」, 『근·현대 사료의 이해와 수집·활용 방안』 제20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회 발표요지(2001) 참조

2) 윤택립, 「구술사특집: 성과와 한계-역사학, 인류학」, 《교수신문》, 2005년 3월 28일자.

3) 구술생애사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간접 경험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술증언도 포함될 수 있다. 구술생애사는 사적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진술 내지 자기표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윤택립, 「한국학 연구방법의 모색-문화기술지적 방법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6권 1호(2003b), 120쪽

4) 윤택립, 「구술사와 지방민의 역사적 경험 재현-충남 예산 시양리의 박형호씨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0-2(1997); 윤택립 「6·25와 유씨 가족」, 『제1차 한국문화인류학회전국대회 발표논문집』(1999); 윤택립, 『인류학자의 과거여행』(역사비평사, 2003a); 박찬승,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 현실』, 제38호(2000); 정진상, 「해방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 경남 진양군 두 마을 사례연구」, 지승중·김준형·허권수·정진상·박재홍 공저, 『근대사회변동과 양반』(아세아문화사, 2000); 엄미경, 「양반가문의 한국전쟁경험: 전남 강진지역의 근대적 지배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29집(2001). 이들 연구에 대한 논의는 표인주·엄미경·박정석(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한울, 2003), 35~36쪽 참조

구술생애사 혹은 생애이야기도 중요한 구술자료라는 인식⁵⁾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구술자료를 텍스트로 하여 구술자 개인의 표현이나 주관적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경험이 사회구조 및 역사적 사실에 영향을 받고 다시 사회문화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여성의 개인생애사를 구성하고자 한다.⁶⁾ 이때 여성들이 공적 기억, 즉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틀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자신의 사적 기억을 구성해나가는지에 주목하는데, 이를 통해 여성경험의 사회적 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 행위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배경과 조사과정

여성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여성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모스크바’ 혹은 ‘빨갱이 마을’로 낙인찍힌 전남 강진군의 S마을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조사마을은 광주에서 버스로 두 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해남윤씨로 13대를 이어오고 있는 동족촌이자 주민들의 전통적인 사회적 신분과 관련지어 마을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반촌에 해당된다. 현재도 여전히 마을주민의 70% 이상이 해남윤씨이며, 실제 거주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총 128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3분의 2 가량이 농가이다. 해남윤씨가문은 강진의 대표적인 양반가문으로⁷⁾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노선에 기반해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했고

5) 유철인, 「구술된 기억으로서의 증언 채록과 해석」, 『근·현대 사료의 이해와 수집·활용방안』, 제 20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의 발표요지(2001).

6) 개인 생애사는 개인의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한 기록을 말하며 비중을 두는 내용에 따라 자료로서 생애사(life history)로 바라보는 관점과 텍스트로서 생애사(life story)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전자는 과거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후자는 자기경험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자료로서 생애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며 문서화된 기록을 보완하는 것과 관련되며 텍스트로서 생애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구술자 개인의 표현이나 주관적인 경험 자체를 하나의 역사 내지는 문화간의 상호작용으로 인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유철인, 「생애사와 신세대령 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2(1990); 유철인,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인류학』, 제29권 2호(1996).

7) 필자가 만난 강진의 향토사학자, 행정공무원, 문화원 관계자, 해당 면장 등 정보제공자들에 의하면 해남윤씨가문은 강진지역의 명실상부한 양반가문이자 저항가문으로 인식된다. 그들에 의하면, 해

해방 이후에도 사회주의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좌익활동가들을 배출하였으며 좌익의 대립구도 속에서 ‘좌익 또는 빨갱이가문’으로 낙인찍혔다 더욱이 동족촌인 탓에 마을사람들은 좌익활동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보도연맹 건이나 군·경 작전에 의해 학살당한 사례가 많은 마을이다.⁸⁾ 그리고 전쟁 이후 이들은 강한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모든 것을 침묵하면서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조사마을이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시기, 그리고 전쟁이라는 격동기에 어떠한 대응과 경험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한 바 있으며,⁹⁾ 이때 전쟁 당시 좌익활동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구술자료 일부를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의 구술 분석에서 젠더요인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의 경험을 초점을 맞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좌익지도자의 아내가 아닌 ‘빨갱이 마을로 낙인찍힌 마을의 좌익관련 피학살자 여성유족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일제강점, 해방 한국전쟁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빨갱이 마을’이 겪은 경험과 가족생활, 그리고 그것이 이후 여성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은 다섯 여성들의 구술생애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는 2001년부터 2년여에 걸쳐 수차례의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여성들 가운데 두 분은 80대, 나머지 세 분은 70대 중반으로 전통적인 양반가문으로서의 정통성은 약했지만 구한말과 일제강점 하에서 경제적으로 지주, 자산가로 성장한 집안 출신이거나 이 집안으로 시집온 여성들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세 분은 조사마을로 시집와서 좌익관련이나 국민보도연맹건으로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홀로 살아온 분이고(박씨 할머니, 위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한 분은

남윤씨가문은 해방 이전에는 세력가문의 위치에서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했고 해방 이후에도 사회운동 대열의 중심에 있었지만 좌익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전쟁을 겪으면서 지역에서 세력가문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 가문은 정부관계 부처의 냉혹한 감시와 검열에 시달리는 가 하면 현재 식민지하에서 전개했던 선대의 민족해방운동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엄미경, 앞의 논문(2001); 표인주·엄미경·박정석(외), 앞의 책 참조
 9) 엄미경, 위의 논문(2001)은 해남윤씨가문의 전쟁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것이 전남 강진지역의 권력 구조에 가져온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해남윤씨 마을의 변동과 마을사람들의 역사이해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조사마을의 대표적인 좌익활동가의 여동생으로 인근 마을로 시집갔으나 국민보도연맹건으로 남편이 죽은 후 자녀와 함께 조사마을로 돌아와 살고 있는 분(윤씨 할머니1)이며, 다른 한 분은 조사마을 출신으로 좌익관련으로 가족성원을 잃은 분(윤씨 할머니2)이다. 이 글의 조사여성들 모두 좌익관련 여성유족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구술생애사 면접과 관련해 특기할만한 점은 조사대상 여성들이 옛 용어나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정돈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사대상 여성들이 양반가문 출신이거나 양반가문으로 시집 온 다른 마을의 양반가문 출신으로, 제대로 된 공식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전통적인 유교적 양반가문의 가정교육을 받았거나 일제시대부터 야학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한문을 배울 수 있었던 조사마을에서 생활했던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구술생애사자료의 활용은 지역별 현지조사와 함께 전체 조사대상 구술자 면접을 통해 수집된 구술자료의 녹취문을 작성한 후,¹⁰⁾ 녹취문의 구술내용을 원형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술자료를 활용하되 현재 사용하지 않은 용어나 사투리 중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괄호를 이용해 풀어주는 방식을 택했다.¹¹⁾

10) 이렇게 하여 수집된 구술자료의 일부는 엄미경(2001)에 수록되었는데, 주요 구술자는 6·25 당시 마을에 거주했던 사람들로 좌익활동가의 직계가족성원, 국민보도연맹으로 희생된 남편이나 가족을 둔 증언자, 그리고 6·25 당시 가족성원을 잃지는 않았지만 마을에 거주하면서 지켜본 사람들 이었으며, 녹취문은 원형 그대로 작성하였다. 이 글은 다섯 여성들의 구술생애사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조사대상자들의 구술내용도 참조하였다.

11) 여성의 구술생애사와 가족사자료의 활용에서 필자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구술내용을 선택했다는 의도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이 글에서 활용한 구술자료가 기본적으로 가족과 마을수준의 전쟁경험과 기억에 관한 구술자료로서 수집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어머니로서 혹은 아내로서 역할처럼 가족의 틀 안에서나 남성과의 관계에서 규정받거나 군위안부문제처럼 민족적 의미를 가질 때만 존재적 의미를 획득했다는 구조적 문제인식에서 볼 때 가족과 마을공동체, 그리고 민족국가 틀 내에서의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을 다루는 이 글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령경, 「한국전쟁 전후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경험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2003); 김은실,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성별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푸른사상 2002); 김부자 「여성국제전범법정이 뛰어넘은 것과 뛰어넘지 못한 것」, 『당대비평 특별호: 기억과 역사의 투쟁』(삼인 2002), 369~389 쪽 한국 구술자료 수집 및 활용현황과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정혜경, 「구술자료와 향토사」, 『광주·전남 문화정책개발센터 제3회 학술대회자료집: 향토사자료의 보존과 지방기록관 설치』(2001),

여성의 구술생애사 자료를 통해 조사마을 여성들의 전쟁경험과 기억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필자의 문제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구술생애사와 관련하여, 역사적 과정이 어떻게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기억이 하나의 필수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는가, 젠더가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만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생활 속에서 생존해왔고 그것은 또한 가족과 친족 헤리티지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서머필드(Summerfield)¹²⁾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의 경험과 그 기억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성, 전쟁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 역사적 자원으로써 개인적 증언에 관계된 것, 기억의 생산에 대한 것, 그리고 젠더와 기억에 대한 것 등을 중심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¹³⁾ 구르비츠(Gurewitsch)¹⁴⁾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함으로써 유대인 여성들의 젠더 정체성의 형성과 그 변화를 포착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여성의 홀로코스트 경험이 젠더와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는 전쟁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왔는데, 이들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에 기반하고 있다. 하나는 전쟁이 여성의 근대성을 앞당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이 여성을 전통적인 생활스타일 속으로 복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¹⁵⁾ 전쟁 중의 여성 생활을 재구성하는 것은 제2차

76~82쪽 참조.

12) Summerfield, Penny, *Reconstructing Women's Wartime Lives: Discourse and subjectivity in oral histories of the Second World War*,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 Press, 1998. 참조.

13) 일본에서는 군위안부들의 구술에 기반해 전쟁피해자로서 군위안부 여성의 전쟁경험을 통해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 가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요시미(吉見義明)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吉見義明, 『從軍慰安婦』(岩波新書, 1995); 표인주·염미경·박정석 외, 앞의 책 33~34 쪽

14) Gurewitsch, Brama(ed.), *Mothers, Sisters, Resisters: Oral Histories of Women Who Survived the Holocaust*, Tuscaloosa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8.

15) 1943년에 출판된 『전쟁 공장』(*War Factory*(1943))은 전쟁기간 동안 레이더 장비를 만드는 한 공장에 대한 참여관찰 보고서이다. *Mass Observation, War Factory*, London: Victor Gollancz Ltd., 1943. 이 보고서는 전쟁이 작업장 혹은 가정의 성별 노동분업에서 여성의 위치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고, 전쟁이 단순하고 낮은 지위의 공장노동에서의 여성 참여를 가속화시켰음을 보여준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성노동자들』(*Women Workers in the Second World War*)(1984)도

세계대전에 대한 여성의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 이해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역사와 표현된 기억에 대한 것이며 젠더에 의해 관통된 일련의 관계들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현재와 미래,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리고 기억과 문화 간의 소통을 포함한다. 특히, 가족사에서 문화적 헤리티지에 대한 연구는 역사에 대한 전망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상이한 수준의 문화적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이나 친족의 이야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가족 연대의 상대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특정 가족 내에서 젠더 역할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왜 과거를 계속해서 논의해야 하며 어떻게 역사적 시기구분이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때 구술자료는 젠더, 계급, 인종, 교육이나 문화에 의해 부정되는 사회 집단들의 역사들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지시 자료가 될 수 있다.¹⁶⁾

다음으로, 여성의 구술생애사에서는 이야기 속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침묵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은 현재의 자기모습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정당화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것과 관련되며 구술의 구조나 방식은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철인¹⁷⁾은 한국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 방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당화하고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해주시기를 바라는 신세타령의 특징을 지닌다고 본다. 그러면, ‘빨갱이 마을’인 S마을 여성들의 이야기방식도 이러한 신세타령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한국전쟁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때, S마을 여성들은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면, 한국여성들은 전쟁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로 윤택립의 연구¹⁸⁾를 들 수 있다. 윤택립은 좌익지도자들의 살아남은 아내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여성들이 한국전쟁을 어

기존에 남성들이 담당했던 노동에 여성들이 접근하는 것이 전쟁 중에도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전쟁 중에도 작업장과 가정에서 성별 관계의 변화가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Summerfield, Penny, *ibid.*, p. 253.

16) Mills, Wanda I. "The Complexity of Gender: A Caribbean Perspective," *Planners Network*, No. 130, 1998(July/August)(http://www.plannersnetwork.org/publications/1998_130/mills.htm).

17) 유철인, 앞의 논문(1990).

18) 윤택립, 앞의 책(2003a).

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윤택림은 무엇이 침묵되고 있는가에 주목했고, 좌익지도자 아내들의 구술생애사에서 인공과 남편이 생략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는데, 윤택림은 이를 이들 여성들에게 한국전쟁 중 인공이야기, 인공시 남편의 좌익활동은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고, 남편들이 좌익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후 반공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기억은 잊고 싶은, 금지된 것이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¹⁹⁾

또한 이들 좌익지도자 아내들의 생애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으로 서술의 중심이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들에게 한국전쟁 경험은 자신의 가족 해체와 함께 마을 내에서의 지도적인 사회적 위치를 앗아가고 ‘빨갱이’ 가족이 되는 등 계층적 하락을 의미했다는 것, 여성가장으로서 자립적인 생계부양자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윤택림은 여성에게 한국전쟁은 남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자식의 생존과 가족의 계층상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여성가장으로 변화되는 계기로서 이해한다.²⁰⁾ 그렇다면, 다른 사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가.

이 글의 사례지역 여성유족들은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 이 질문과 관련해 좌익 관련 여성유족이라도 동일한 한국전쟁 경험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의 통합되고 보편적인 역사적 경험은 존재하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의 성원으로서 여성의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여성의 결혼, 남편, 그리고 가족

여성의 정체성은 지역, 계층, 교육, 젠더이데올로기, 개인의 성격 차이, 그리고 다양한 삶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현재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구술생애사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젠더에 의해 자아가 구성되는 과정과 함께 인간의 삶과 사고에 젠더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젠더에 의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일한 사

19) 위의 책, 241~242쪽.

20) 위의 책, 27쪽.

건이 모든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 글의 조사대상 여성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여성의 통합되고 보편적인 역사적 경험은 없다. 단지 특정 사회집단의 성원으로서 여성의 다양한 경험이 있을 뿐이다. 어느 사회에 서든지 여성은 단순히 한 특정 사회범주의 성원이고 공존하고 경쟁하는 많은 사회 집단과 관계들에서 나오는 독특한 여성적인 시선이기 때문이다.²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사례마을은 일제강점시대부터 민족해방운동 전선에서 좌익운동단체에 관여해온 대표적인 반촌이자 동족촌으로, 마을사람들의 대부분이 좌우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방이 되면서 마을에서 영향력 있고 학식 있는 인물들이 좌익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좌익활동을 하면 평등하고 좋은 세상이 온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²²⁾ 이 마을의 대표적인 좌익 활동가들은 부농 출신으로 식민지체제 하에서 해외에서 신교육을 경험하고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한 양반가문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러면, 이 양반가문 출신의 여성 혹은 이 가문으로 시집온 다른 마을 양반가문 출신의 여성들은 어떠했는가.

이 글의 조사대상 여성들을 통해서 볼 때, 같은 집안의 남성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하였던 데 반해 여성들은 제대로 된 공식교육을 받지 못했다. 부농 출신인 조씨 할머니만 소학교(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뿐 그 외는 공식교육을 받지 못했다. 좌익 활동가 집안 출신의 여성유족 두 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큰집 오라버니가 야학교사를 했는데 오라버니가 일제 때 끌려 다니곤 했다... 내가 10대 때 야학에 다녔다. 오라버니보다 밑 세대들이 야학을 가르쳤고, 나는 힘든 세상에 살아서 낮에는 바다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국문도 깨우치지 못해 대강 알고 있을 뿐이다(윤씨 할머니1).

우리 세대에는 보통 집안에서는 아들만 보통학교(초등학교) 보내고 여자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 그래서 아저씨들이 야학을 지어 가지고(쌀을 조금씩

21) 윤형숙, 「여성생애사연구방법론」, 『여성연구』, 3권 1호(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5), 99~116 쪽

22) 표인주·염미경·박정석(외), 앞의 책, 131~132 쪽

견고 해서 그걸 팔아서 집을 하나 지어서 야학이라고 해 놓고 거기서 가르쳤고 나도 12살 때 야학에 다녔어요...여자도 모르면 큰일이라고 집안 아저씨들이 서울에서 학교에 다녔었는데 방학 때 내려와서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그때 국문과 한문도 배우고, 작문도 해서 대충대충 다 해요. 조금 배웠지요. 그때 일본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는데 공산주의 공부한다고 못하게 쫓아다녔지요. 지서의 순경들이 뭐 배운가 조사하고 아저씨들을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매 때리고 병신 되게 만들고 했지요. 그 뒤 해방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뒤로는 젊은 학생들, 그 아까운 사람들 공산주의 한다고 못쓰게 만들어 불고...참말로 세상이 왜 이런가(윤씨 할머니2).

이와 같이 양반가문 출신 여성들은 공식 교육을 받을 기회부터 상실하였지만 다행스럽게 조사마을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야학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성들의 경우 국한문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유교전통의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교전통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와 정절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였는데, 사례 여성유족들은 경제활동 수행여부에 관계없이 남자는 여자와 다르며 우월하다는 전통적 젠더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조심을 해야 하고 여자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해야지. 요새는 여자가 남자를 주무르니 남자들이 불쌍해라. 남자가 더 세야 하는데 요새는 여자 세상이야. 결혼하면 남자들이 불쌍해. 전에는 남자가 이러라면 이려고 저러라면 저랬는데, 나는 34살이 되도록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한번도 앞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 요새는 앞문으로도 들어가고 뒷문으로도 들어가고 여자 세상이야...여자라서 억울하지만 어쩔 것이여. 나는 시집살이도 안 했어. 우리 시아버지만 그렇게 무서웠지 우리 시어머니는 천사여라, 천사여. 우리 시어머니는 딸 다섯 낳고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23살에 죽었는데 어쩔 것이여. 그런 양반도 살았는데, 나도 살아야지 어쩔 것이여(위씨 할머니).

특히 정절이데올로기도 강하게 보이는데, 조사대상 여성유족들 모두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자식을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온 경우에 속한다. 이들의 정조의식은 가

족과 친지들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기보다는 스스로 내면화시켜 선택한 경우로, 전통적인 유교적 양반기문의 가정교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양반마을의 성원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역사 연구, 특히 구술생애사의 구성에서 중요한 지점은 문화와 기억간의 상호작용이며 구술생애사 면접이 기억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억은 항상 현재와 개인의 심리를 기반으로 해 형성된다는 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비록 기억들이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독특한 측면들을 가질지라도 그것들은 사회적 측면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²³⁾

여기는 마을이 원체 좋아서... 여자들 꽃다운 나이에 혼자되잖아요. 할 말은 아니지만 꽃다운 나이에 혼자되면 타성 같으면 다른 남자들이 얻어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없어요. 생긴 혼자 살면서 문 잠그고 잔 적이 없어요. 타성 같은 데서는 여자들 혼자 살면 남자들이 범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이 마을이 좋은 마을이요. 지금도...양반들이라서...남편 죽고 자식들 죽은 거만 빼놓고는 없어. 타성들 사는데 가보면 거기는 잘 몰라...백사(아랫마을, 민촌) 같은 데나 그런데는 시끄럽 닳을 거요. 타성만 사니까(박씨 할머니).

한편, 한국여성들에게 시집은 삶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조사대상 여성유족들의 배우자 선택과정을 보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950년 음력2월에 사례마을로 시집오게 된 조씨 할머니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23)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 구술자와 면담자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수집된 자료의 성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구술내용의 '정확성'을 중시할 경우 두 사람의 친밀도를 강조할 수 있다. 유교전통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경우 여성의 羞 慚 이나 정조 의식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구술생애사 면접이 기억에 의존하고 있고 그 기억은 현재 속에서 형성된다는 기억의 '구성성'을 중시할 경우 특정 기억과 경험 성이나 정조와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구술내용이 가족이나 마을공동체 혹은 민족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때 집단정체성 그 자체도 고정되지도 단일하지도 않고 유동성을 갖는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Norquay, Naomi. "Identity and Forgetting," *Oral History Review*, 26/1, 1999(Winter/Spring); Hollenberg, Donna Krolik, "At the Western Development Museum: Ethnic Identity and the Memory of the Holocaust in the Jewish Community of Saskatoon, Saskatchewan," *Oral History Review*, 27, 2000(Summer/Fall).

그때는 우리 친정에서 들어본께는(들어보니까) 한 집안에서 운동하다가 작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다고 그러드만. 그런 소리가 들리드만 우리 동네가 고모가 여기에서 시집을 왔어.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나를 시집을 보내줄라고 애를 썼어. 그래서 내가 여기로 시집을 왔어 여기가 양반이고 우리 한양조씨도 양반이고 그랑께, 양반에 속해서 여기로 (시집을) 보냈제. 엄니(어머니)는 여기가 밭이 많고 길쌈하고 고생 많이 시킨다고 나를 (시집) 안 보낼라고 그랬어. 그래도 감히 서방님(조씨 할머니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제 여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로 왔어 나는 그냥 보내니까(시집 가나보다 하고 왔어(조씨 할머니).

당시는 외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양반가문에서는 신분적 위세를 신분내혼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폐쇄된 전통사회에서는 지역내혼 관행이 두드러진다.²⁴⁾ 좌익관련 여성유족들의 경우도 반촌이자 강진지역의 대표적인 양반가문으로 시집 온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씨 할머니와의 면접내용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혼인문제는 양반집안끼리 했으며 양반이 아니면 혼인을 시키지 않았다. 지금도 결혼할 때 양반마을에서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밀양박씨로 우리 친정은 장흥서는 알아주는 집안이었고 여기가 또 해남윤씨 양반이고 해서 이리 혼사도 했고(박씨 할머니).

그러면, 20대에 홀로된 이들 여성유족들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를 여성유족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한 좌익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편을 빼앗긴 피해자일 뿐이다. 큰 부자도 없고 크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여자들이 거의 포기하고 사는 상태였다. 여기는 드센 여자는 없고 다 순한 여자들만 있어서 그렇게 나서서 하지는 않았어요(박씨 할머니).

24) 표인주·염미경·박정석(외), 앞의 책, 119쪽.

남편은 그렇게 변변한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 세상이면 시집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쇠죽술에 빠져 죽을 뻔한 것만 봐도 그렇다. 좌익사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죽인 사람들도 죽이고 사람을 잘못 죽였다고 했다...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도연맹이라는 것이 있었다. 남편은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는데 경찰들이 후퇴하면서 죽었다. 경찰들은 새벽에 훈련한다고 (남편을) 불렀다. 어느 날 경찰들이 새벽에 나오라고 했다. 남편은 저녁에 잠들면서 지금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 훈련에 못가면 큰일이라고 그러기에 내가 깨워줄 테니 자라고 말하고 잠들었는데, 내가 새벽에 깨워주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남편은 나가고 없었다. 그날 그렇게 나간 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른다(윤씨 할머니1).

보도연맹에 가입 안하고 도망가다가도 죽고 가입해서도 죽고 그랬다. 남편은 인민군들이 들어왔다가 도망가고 순경들이 들어와서 죽었어(위씨 할머니).

이와 같이 윤씨 할머니1의 경우 그다지 많지 않은 남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좌익과 관련해 가족성원이 희생된 후 가족생활은 어떠했을까. 더욱이 가장으로서 남편이 희생된 뒤 여성유족들의 경제생활은 어떠했을까

땅만 파먹고 살았다. 남들은 남편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집에만 있냐고 구박해서 한번 따라만 가봤지 그 후에는 그냥 집에서 농사만 지었다(박씨 할머니).

6·25 난리와 남편이 죽고 고생하며 살았다 아무 것도 없이 썩이며 풀을 뜯어 죽을 썩으며 살았다.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는데 요즘과 달리 그 세상에는 국민학교(초등학교)도 납부금을 내고 다녀야 했다. 국민학교 납부금이 없을 정도였고 도시락도 못 싸주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때면 집까지 달려와 찬 죽으로 점심을 때웠다. 작은 딸이 무척 똑똑했는데 중학교만이라고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딸들을 못 가르쳐서 시집도 변변하게 보내지 못했다. 큰 딸은 그래도 (시집을) 잘 보냈는데 사위가 병으로 일찍 죽었고 작은 딸은 사위가 술만 먹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딸들도 고생 많이 했다...남편이 죽으니 집이고 논이고 다 없어지고 생각하면 징글맞다(윤씨 할머니1).

바지락을 캐서 여기서 20리나 되는 대덕재를 넘어 팔아서 살았다 한 해는 설이 되었는데 설을 지낼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바지락을 캐 팔러 갔는데 그 날 바지락 값이 비싸서 쌀도 사고 빨감도 사서 설을 보낼 수 있었던 적이 있다... 6·25때 나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고생했다. 나처럼 그렇게 살았다(윤씨 할머니1).

남편 죽은 뒤 평범하게 살았죠. 아들 하나와 6·25 때 아들이 세 살이었었거든. 전쟁 끝나고 참말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하늘만 쳐다보고, 한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고...(박씨 할머니).

6·25 끝나고 생계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라. 농사짓고 논 조금 있는 것 가지고...6·25 후에 힘들어도 어쩔 것이요. 그렇게 살아야지. 아들 하나 잘 되면 쓰겠다하고 살았어. 억울하지만 어쩔 것이요. 위씨 할머니.

조사대상 마을의 여성유족들은 모두 양반가문의 자손이었지만 남성들과 달리 교육기회로부터 배제되었고 야학마저도 일제의 탄압으로 제한되면서 공식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결혼하기 전 순종적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은 남편이나 가족성원들이 학살당하고 가족 생존에 있어 절대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고 빈곤상태를 벗어날 만한 기반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사회경험 없이 가족생계부양자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²⁵⁾ 이 과정에서 남성은 부양자이고 여성은 피부양자라는 유교적 성별 이데올로기는 해체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유교전통의 가족주의적 사고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25) 이임하에 따르면, 『대한민국통계연감』에 조사된 미망인 수는 1952년을 기준으로 40세 미만이 131,100명, 40세 이상 162,752명 등 총 293,852명이고 『보건사회통계연보』에서 조사된 전쟁미망인을 포함한 미망인 수는 대략 50만 명 내외이다. 이들 미망인 중 70% 이상은 빈곤상태에 있었으며, 약 80% 정도가 국졸 미만의 학력으로 자신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미망인 중 45% 정도는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는 문맹자들이었다. 이령경, 앞의 논문, 52쪽;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 『역사연구』, 제8호(2000), 19쪽

남편이 학살당하고 혼자된 이후에도 여성유족들에 대한 유교의 전통적 질서의 강요는 여전하였는데, 전통적인 인습에 따라 시택에 의탁해 살거나 남편 없는 시집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몸가짐은 수녀처럼 하면서 경제적 빈곤에 대항하기 위해 실질적인 부양자 역할과 함께 시부모를 섬기고 아이를 길러야 했다. 이처럼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제도는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조사대상 여성들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여성들은 양반가문에서 태어나 다른 양반가문으로 시집와서 재가에 대한 생각없이 과부로서 살아야 했다. 전통적으로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집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여성의 재가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구술자들은 재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혼자 살아온 것을 자신의 ‘팔자’라고 표현하였지만 은연중에 재가한 여성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여성들은 양반가문의 자손인 탓에 가정 내에서 유교의 가부장제 그리고 정절이데올로기를 철저히 학습해 온 여성들이었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채, 먹고 살기에도 힘들었던 생활 속에서 침묵과 회피로 삶을 살아야 했다.

IV.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전쟁기억과 전쟁 이후의 생존전략

1. 마을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학살기억, 그리고 침묵

구술자들은 남편이 학살당한 이후 가족 생존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살아남은 여성들이 느꼈던 가장 큰 피해는 남편, 형제, 부모가 죽었다는 것이다. 남편이나 가족성원 중 남성의 죽음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갖는 지지기반과 자원이 박탈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혼자된 여성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친족관계와 노동의 교환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함께 이령경²⁶⁾은 좌익관련 여성유족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동체 안에서 경계의 대상이었고 좌익 관련으로 아버지나 남편의 죽음으로써 부계 중심의 친족 체계

26) 이령경, 앞의 논문 참조

에서 친족사회와 단절되었다고 지적한다.²⁷⁾ 그러나 조사마을의 경우는 마을구성원 대다수가 좌익 관련해 피해를 당한 관계로 이런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조사마을이 해남윤씨 동족마을인 점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전쟁 당시 학살지역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하고 있었으며 단지 그동안 침묵해왔을 뿐이었다. 더욱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가족이나 남편이 왜 끌려가야 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와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빨갱이나 국민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군인이나 경찰도 빨갱이나 반란군도 이들에게 무서운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때 당시 너무나 배운 것도 없고 한마을에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니까 좋은 것이구나 하고 따라갔는데 마을 구성의 특성상 타성은 없고 해남 윤씨 동족촌이어서 그 위에서 우두머리 하신 분이 촌수가 아제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형님도 되고 그래서 그분이 그쪽으로 머리를 써서 그런 분 따라서 그랬지 좌익이 무엇인지 우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았다...정치가 무엇인지 좌익이 무엇인지 빨갱이가 무엇인지 모른 채 희생만 당했다. 빨갱이로 몰려서 당시 남자들이 집집마다 한 명 혹은 두 명이 총살을 당했다(박씨 할머니).

같은 일가만 살면 다 같이 살잖아요 그니깐 피해를 많이 본다잖아요 다른 데는 일가가 아니니까 뭐 하자고 하면 같이 안하고 하니까. 인민군들이 들어와도 시키는 대로나 하고 근데 여기는 피해가 많았지. 그때 당시 윤순달 씨라는 양반이 ‘하늘에 거미집(전깃줄)이 쳐지고 땅에는 바둑판(농지정리)이 쳐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기가 들어왔고 농지정리가 이루어졌다...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안 따를 수가 없죠 글도 그렇게 잘 하셨다고 하드만. 그때 당시에 머리가 완전히 천재여서 모르는 것이 없고...이북으로 넘어갔지만은...(박씨 할머니).

6·25...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무서운게 별별 떨고만 다녔어 사람들은 다 도

27) 위의 논문, 54쪽, 73쪽 참조

망가고 그랬어. 그러다 잡히고 죽고 그랬다. 순경이 죽었어. 인민군에게 피해 당한 것 없어. 근데 그런 것들도 못쓰고 저런 것들도 못써 세상이 다 못써 윤가현(좌익활동가)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 그 사람도 죽어야 써(위씨 할머니).

전쟁이 끝난 후 좌익관련 피학살자 유족들은 연좌제 등으로 인해 억울함과 원통함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사회관계 속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한으로만 간직하고 살아왔다. 더욱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삶을 유지해온 여성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하나의 한계상황이었다.

우리가 계속 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대학교도 나왔을 것인데 나와 봤자 가산만 탕진해버리고 취직도 안 된다고 그래 안해 버리고 그랬지. 누구한테 가서 호소를 할 것이어. 우리 마을에 경찰관 한 명도 없어. 인제 겨우 되어서 그때 연루 잘 안된 사람에 한해서 서기관도 시키고 했다고 하더만(좌익활동가 직계 가족과의 면접).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역시 자식이(면접대상자의 남편) 좌익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 시어머니는 끌려가서 거기서 반병신이 되어서 나왔고 80년대에 시어머니가 나라에서 억울한 공산주의의 누명을 쓴 사람들을 벗겨준다고 하여 오라고 했으나 두 번은 속지 않는다면서 수면제를 복용하여 사흘만에 깨어났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죄 없는 사람은 무마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는지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호적에 낙인이 찍혀졌다. 그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나는 안돼. 아, 나는 안돼 우리는 안돼' 하는 생각에 시작도 못한 일들도 많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텐데'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이다(박씨 할머니).

대체로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마을, 그것도 동족마을사람들이 한국전쟁 당시 발생했던 학살기억이나 경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매우 드물다. 어떤 식으로든지 호혜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경험이나 기억을 들추어내는 일은 오히려 무용하거나 유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전쟁이 현재의 생활 속에 묻혀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은 망각하고 어떤 경험은 회상하는지, 그리고 과거 경험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하는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사람들은 마을에서 원한이나 갈등 때문에 살상이나 폭력행위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외적 원인에 그 책임을 돌린다. 그러나 전쟁 중에 가족이나 본인이 희생당했거나 학살당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물론 폭력을 불러온 원인과 갈등의 배경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구술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덮어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가족들의 죽음 및 개인적 상흔으로 남아있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 기억은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과 현재의 위치에 따라 얽히고 설켜어 나타난다. 더욱이 역사에서 ‘주변인’으로서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억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도 못한 채 단절되어버리기도 한다. 이들의 기억의 일부는 ‘공식적 기억’으로 서사되지만 많은 부분은 망각되거나 ‘기억의 회피’가 일어난다. 기억의 회피는 회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건이나 체험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이 글의 조사대상 여성들에게서도 일정하게 나타난다.

인간의 역사는 기억의 전수과정이며 이것은 또 하나의 투쟁과정을 동반한다고 하지만 조사대상 여성들, 특히 부양해줄 자식이 없어 혼자서 여생을 살아온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전쟁기억을 전수할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혼자 아파하면서 사회적으로 기억을 억압하면서 침묵을 지켜왔다.

28) 이때 마을사람들의 ‘기억하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한마을사람’ ‘일가’라는 정체성 형성에는 무엇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잊는지 그리고 어떻게 잊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마을사람들의 구술 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곧바로 그들의 ‘과거’에 접근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사회적 기억과 공유하고 있는 지식의 많은 부분은 말해지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채 ‘격리’되어 암묵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의 정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억의 사회적 차원을 밝히는 것이 된다.

29) Thelen, David, ed., “Special Issue: Memory and American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75, No. 4, 1989, p. 1122.

2. 좌익관련 여성유족들의 전쟁 이후의 생존전략

1) 국가 주도 개발정책에의 동참

대체로 전쟁 이후 좌익 관련 여성유족들의 생존전략은 전후 반공체제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이었다. 남성유족들이 관(官)과 친분을 돈독히 하는 처세를 익혔다면,³⁰⁾ 조사마을의 대다수 여성들은 몸으로 체득한 말조심을 삶의 지혜로 하여 박정희 정권에 대해 동의와 방관의 자세로 임해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된 개발정책 하에서 국가 주도 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이 있는데,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참여해 새마을부녀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여성(조씨 할머니)의 경우이다. 이 여성유족의 친정집안은 부농이었는데 전쟁 당시 우익으로 몰려 좌익에 의해 부모와 남자형제들 모두 희생당한 경우이다.

친정오빠들도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지도 안한디 우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더만. 그런데 나중에는 6·25가 일어나고 좌익사상 어떻게 해서 재산을 다 가져 가더만. 그러고는 우리 엄마가 좋은게 우리 엄마 뚝으로 논 닷 마지기를 주더만. 동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더라고...부모님은 6·25 때 8월에 돌아가셨어. 부락사람들이 좌익사람이어서... 우리 아버지는 우익이라고 해서 인민재판까지 회부됐었지. 말하자면 공직생활도 안해 보고 그냥 있는 재산 열심히 해서 사보태서 논도 늘어나고 그랬는다. 그라데 내가 생각해도 어디 가서 도둑질 한번 안해보고. 임오년, 흥년 때도 쌀을 30가마나 부락에 내놓고 부락이장한테 알아서 다 나눠주라고 그랬는다...그러니까 인민재판에서 이겼어. 그것도 소용없드만 그냥 가서 죽어버리더만 8월 열이렛날이 제사여 어머니는 스물 하루날. 다 그랬어 우리가 7남매인데 동생들이랑 다 죽고 오빠하고 나하고 삼남매만 살았는디, 다 돌아가시고 인자 나만 남았어

30) 조사마을의 전쟁경험은 ‘국가권력에 의해 당했다고 하는 피해의식과 함께·공산당 마을 이라고 낙인찍혀 있기 때문에·조금이라고 밋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마을사람들은 각종 정부정책에 더욱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조사마을은 여당지지 성향을 갖게 된다. 마을사람들은 자신들이 좌익 혹은 지배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했다. 표인주·염미경·박정석(외), 앞의 책, 137~138쪽.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 앞의 논문(2001)을 참조

이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친정집안 경험을 함께 가진 이 여성유족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참여해 박정희 정권의 개발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길을 걸어왔다. 이 여성유족이 새마을사업에 참여하고 부녀회장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권이 시작되면서 나를 부녀회장을 시키려고 촉진회장, 지서장 면장이 와서 우리 시아버님한테 와서 나를 부녀회장을 시켜달라고 몇 번을 그래서, ‘누가 혼자된 며느리를 부녀회장하라고 하겠어.’ 그랬는데, 계속 와서 해라 해라 하니까 나중에 나무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혼드는 격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할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낙을 해줬지

이 여성유족은 1962년부터 20년간 부녀회장 활동을 하였고 남편의 형제는 새마을사업을 추진할 당시 마을이장 일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 여성의 집안은 국가권력에 추수적인 태도로 반공체제에 적응하였다. 마을 단위를 비롯해 면 단위의 부녀회장을 역임한 이 여성유족의 부녀회 경험을 살펴보기로 한다.

뭐든 적게 쓰고 적게 해서 저축하고 뭐이든지 새마을사업을 해서 부녀회 돈도 좀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하나도 없었어. 지원해준 것 있어도 자기들이 다 씹어 먹고...어떤 사람이 그러대. ‘이래서 하우스 재배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파, 말도 마쇼에. 말단 그렇고 건덕지 없어.’ 그러니까 시아제가 ‘돈 나오면 나 좀 줘’ 그래서 ‘뭘 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돈 나오면 나 좀 줘’ 그래서 ‘돈 나오면 다 줄게요.’ 그랬어. 근디 누가 돈을 줄 것이요 조금 돈이 될만하면 즈그들이(자기들이) 다 먹어 버리제.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 그릇하나도 뭐하나...근디(그런데) 나중에 부녀회장 한 사람은 없는 것이 없습디다. 우리들 할 때는 뭐 하나도 없어. 잘하면 잘한다고 냄비나 한 조각 주고 살 탕다고 술 한 잔 안 줘 여편네들인게 모지란 듯 하고 내버려둬 버리제. 그런 것도 안 해 봤어.

이처럼 이 여성유족의 경우 다른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과 같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고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

과 다른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체념하는 순응적 삶의 선택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조사대상 여성유족들은 다른 유족 당사자들이 학살문제에 대해 내면화된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군사정권에 대해 침묵으로서 일관해왔던 것처럼 그 당시 학살에 대해 말해줄 대상도, 들어줄 상대도 없이 단절된 채 여생을 살아왔다. 더욱이 여성들은 가족 속에 안착해 자신들의 경험을 은폐한다. 조사마을주민들은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에서 방영된 국민보도연맹에 관련한 것은 조사마을공동체 내에서 공유돼온 전쟁기억을 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여성들은 당시 한국전쟁이 그녀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인식을 하였다. 즉, 한국전쟁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억울하지만 누구를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돌린 채 체념하면서 사는 순응적 삶의 양상을 드러낸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은 가족을 잃고 자신의 인생이 꼬이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참고 견뎌야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은 이 고통을 운명으로 돌린 채, 체념하는 순응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 시대의 고통은 힘겹게 견디며 살지만 자식만은 그것을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했지만 자식들의 삶도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

한편, 조사마을 여성들의 전쟁기억에서 인공과 남편은 생략되어 있지 않다. 윤택림의 연구³¹⁾에 의하면, 여성들의 서술에서 한국전쟁 중 인공이야기, 인공 때 남편의 좌익활동은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로 나타나지만 이 글의 조사대상 여성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의 좌익활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숨기지 않지만 그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이 남편이 하는 바깥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좌우익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윤택림의 연구³²⁾와 달리, 이 글의 조사대상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중요

31) 윤택림, 앞의 책, 41쪽.

32) 위의 책, 243쪽.

내지는 한도 그다지 없으며 만아들에 대한 특별한 의존의식, 과부가 된 어머니와 만아들이 가족관계의 축이 되어 가족의 생존과 사회적 계층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틀 속에 존재했다는 점, 따라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들이 시집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기억들이 많지 않은 점들을 들 수 있다.³³⁾

전쟁이 끝난 후 좌익관련 피학살자 유족들은 연좌제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면서 일상적으로 내재된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체념과 순응의 삶을 선택했고, 조사대상 여성들의 대다수는 이를 선택했다. 유족들은 억울함과 원통함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사회관계 속에서는 지울 수 있는 한으로만 간직하고 살아왔다. 특히 좌익관련 여성유족들은 모든 생활영역이 사적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살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판단도 보류한 채 여성구술자들은 대부분 학살의 책임을 시대를 잘못 태어난 탓이거나 자신들의 팔자소관으로 돌린다. 부모형제, 남편이 학살당한 것도 자신의 팔자 탓이고, 세월을 못타고 났으니 우리만 억울하지 라는 말대로 죽은 사람과 살아서 힘들게 고생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는 “내 팔자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참말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한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고...;” “어쩔 것이요 고생 많이 하게 태어난 운명을... 도망갈 생각은 해본적도 없어;” “힘들어도 어쩔 것이여. 그렇게 살아야지. 아들 하나 잘 되면 좋겠다고 하고 살았어;” “전쟁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소 잘 벌고 편히 살 수도 있었는데;” 등과 같은 조사대상 여성들의 구술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그 이면에는 허무의식이 내재해있다.³⁴⁾

33) 이 점은 윤택림의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여성들은 좌익지도자의 아내였던 데 반해, 이 글의 조사대상 여성은 좌익마을의 평범한 여성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34) 이러한 조사대상 여성들이 가진 허무의식의 근원과 관련해 구술생애사 면접 당시 이들이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전쟁 이후 좌익관련 유족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자식들에게 ‘점 을 안겨줌으로써 자식의 삶도 평탄치 못했고 이로 인해 자식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3) 고통과 빈곤의 악순환

죽을힘을 다하면서 견뎌온 여성구술자들은 홀로 빈곤상태에서 살아오고 있고,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여성유족들(윤씨 할머니1, 윤씨 할머니2, 위씨 할머니 등)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남편이나 가족성원이 좌익으로 규정되어 학살당한 후 집안의 남은 식구들은 연좌제로 시달려야 했다. 여성구술자들의 연좌제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호적에 낙인이 찍혀졌다. 그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나는 안돼 아, 나는 안돼, 우리는 안돼 하는 생각에 시작도 못한 일들이 많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박씨 할머니).

대체로 연좌제가 폐지된 1980년 이후에도 좌익관련 유족들의 연좌제 피해는 계속되었고 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해 시행되었던 반공교육과 각종 공안사건 등의 영향으로 일상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가 내재화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학살의 기억과 고통을 부정 혹은 침묵해야 했다.³⁵⁾ 유족들은 자신들의 전쟁경험을 자식에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쟁경험을 지닌 부모세대나 전후 세대 모두에게 빨갱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콤플렉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좌익관련 피학살자 유족의 대부분은 연좌제³⁶⁾에 의해 정치적 공간에서 배제 당해왔다. 그 가운데서 좌익관련 피학살자 남성유족들은 군, 경찰과 같은 직종으로는 진출하지 않는 것으로 연좌제의 사슬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회피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조사마을의 여성구술자들은 어떠했을까.

여성구술자들 가운데 연좌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는 박씨할머니 뿐이다. 다른 여성구술자들은 연좌제 피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성은 전쟁과 학살과 같은 직접적 폭력 외에도 가족주의와 군사주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배제와 차별 등의 불평등과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경우는

35) 이령경, 앞의 논문 참조

36) 연좌제로 인한 마을사람들의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엄미경, 앞의 논문(2001); 표인주·엄미경·박정석(외), 앞의 책, 139~140쪽을 참조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공적 영역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직업선택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자신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연좌제의 차별은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들은 연좌제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열려있었던 정치적 공간에서조차 완전히 배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좌익관련 여성유족들은 군대 혹은 군사화의 지속을 위해 물질적, 정신적 동원대상으로 타자화될 뿐 제한된 시민권 획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배제 외에, 좌익관련 여성유족들이 겪어야 했던 구조적, 문화적 구속에는 경제적 고통이 으뜸이었다. 현재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부업이나 농사일을 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최저빈곤층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채 먹고살기에도 힘들었던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기억은 단절되었다. 이런 정체성과 기억의 단절은 여성유족들에게 집단적 허무의식과 가치관의 혼란을 갖게 했다. 이들의 학살의 고통은 기억 밑바닥에 회한과 침묵의 소리로만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라 집안어른들이 주요 좌익 활동가들이었다는 것을 몰랐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 해주지도 않고...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요시찰을 당했제. 우리는 요시찰 가족이여.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었제. 그란디(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방송프로그램) 그런 데에서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봄, 가을이면 보안대에서 오든지, 경찰서 형사계에서 오든지 의례 와서 그냥 돌아보고 간 사람도 있고, 쓰잘대기(쓸데) 없는 것 물어보고 간 사람도 있고... 연좌제 폐지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서...(좌익활동가의 직계가족성원의 구술).

연좌제의 적용은 좌익관련 가족이나 마을사람들에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대 혹은 가족의 과거 좌익경력으로 하여금 자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거를 더욱 한스럽게 여기게 만들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연좌제로 인한 피해경험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비롯해 집안 남성들의 선택 때문이었지만 이것은 이후 여성들에게 고통과 빈곤을 안겨줌으로써 여성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성들은 이를 남편 잘못 만나 비롯된 자신의 팔자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전쟁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해체는 물론 계층적 하락을 경험하게 했고 남편 없이 가장으로서 가계를 유지해나가야 하는 상황을 감내하게 했다. 윤택림의 연구³⁷⁾ 대상이었던 좌익지도자의 아내들은 열심히 일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혼인 시키는가 하면, 만아들과 함께 계층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글의 조사대상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조사대상 여성들은 전쟁 이후 가정의 생계자로서 빈곤과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난으로 인해 자식들을 교육시키지 못했고 가난 또한 자식들에게 대물림해줘야 했다. 그리고 양반가문 출신의 여성들이었던 조사대상 여성들은 20대에 남편을 잃고 평생을 홀로 살아온 가부장제의 실제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였다.

V. 맺음말

이 글은 여성은 역사의 주체에서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경험을 드러내지 못한 채 침묵해왔다는 인식 하에 한 좌익마을 여성들의 구술생애사 자료를 통해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반촌 마을의 좌익관련 전쟁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구술생애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서 유교전통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며 자신의 삶이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팔자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유족들이 겪은 피학살 경험은 직접적 폭력으로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만 전쟁 이후 그들의 겪어야 했던 반공이데올로기, 구조적, 문화적 구속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더욱이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언어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경향이 크고,³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특수한 경험을 자신의 관점으로 설명할

37) 윤택림, 앞의 책, 245쪽.

38) 윤택림, 「지방, 여성, 역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사연구」, 『한국여성학』 제1권(1995), 27-46쪽, 조혜정, 「한국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여성과 남성 4』(문학과 지성사, 1989); 윤형숙, 앞의 논문, 99-116쪽.

수 있는 틀과 언어를 갖거나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때 자발적 자기표현인 동시에 자기확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구술생애사는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형식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구술생애사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여성주의적 입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과 그것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객관화하는 작업이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남성들이 빠트린 여성의 삶을 기록하여 여성에 관한 자료를 보충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여성생애사 연구가 아니라 여성의 삶과 사회역사적 사건의 상호작용,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모색해가는 과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과 역사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어야 한다.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이 자신이 겪은 경험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되도록 사회적으로 용인된 규범과 언어에 맞추어 설명하려 할 때 어떻게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복원하여 줄 것인가. 또한 여성들이 때로는 남성들의 지배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때로는 그것과 상치되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상호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어떠한 측면에서 들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전략과 분석이 필요하다.³⁹⁾ 이와 함께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문화질서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 연구 작업들이 보다 축적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부자, 「여성국제전범법정이 뛰어넘은 것과 뛰어넘지 못한 것」 『당대비평 특별호 기억과 역사의 투쟁』. 서울: 삼인, 2002.
- 김은실,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성별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서울: 푸른사상, 2002.
- 박찬승,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동리의 비극」 『역사와 현실』 제3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0.
- 염미경, 「양반가문의 한국전쟁경험: 전남 강진지역의 근대적 지배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29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1.

39) 윤형숙, 위의 논문, 114쪽

- 유철인, 「생애사와 신세타령: 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2, 1990.
- 유철인,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인류학』 29-2, 1996.
- 유철인, 「구술된 기억으로서의 증언 채록과 해석」, 『근·현대 사료의 이해와 수집·활용 방안』 제 20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의 발표요지, 2001.
- 윤택림, 「구술사특집: 성과와 한계 역사학, 인류학」, 《교수신문》 2005년 3월 28일자
- 윤택림, 「지방, 여성, 역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사연구」, 『한국여성학』 제11집, 1995.
- 윤택림, 「구술사와 지방민의 역사적 경험 재현: 충남 예산 시양리의 박형호씨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0-2, 1997.
- 윤택림, 「6.25와 유씨 가족」, 『제31차 한국문화인류학회전국대회 발표논문집』, 1999.
-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서울: 역사비평사, 2003a.
- 윤택림, 「한국학 연구방법의 모색: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6권 제 2호 2003b.
- 윤형숙, 「여성생애사연구방법론」, 『여성연구』 3권 1호,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5.
- 이령경, 「한국전쟁 전후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경험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논문, 2003.
-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 『역사연구』 제8호, 역사학연구소, 2000.
- 이혜준, 「근현대 지방사료 수집의 방향과 과제」, 『근·현대 사료의 이해와 수집·활용 방안』 제20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 발표요지, 2000.
- 정진상, 「해방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 경남 진양군 두 마을사례연구」, 지승중·김준형·허권수·정진상·박재홍(공저), 『근대사회변동과 양반』,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 정혜경, 「구술자료와 향토사」, 『광주·전남 문화정책개발센터 제8회 학술대회자료집 향토사자료의 보존과 지방기록관 설치』, 2001.
- 조혜정, 「한국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여성과 남성4』,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 최기자, 「여성주의 역사쓰기를 위한 여성 ‘빨치산’ 구술생애사 연구」, 한양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1.
- 표인주·염미경·박정석(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 서울: 한울, 2003.
- 吉見義明, 『從軍慰安婦』, 東京: 岩波新書, 1995.
- Gurewitsch, Brama, ed., *Mothers, Sisters, Resisters: Oral Histories of Women Who Survived the Holocaust*. Tuscaloosa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8.
- Hollenberg, Donna Krolik, "At the Western Development Museum: Ethnic Identity and the

Memory of the Holocaust in the Jewish Community of Saskatoon, Saskatchewan.” *Oral History Review*, 27, 2000(Summer/Fall).

Mass Observation, *War Factory*. London: Victor Gollancz Ltd, 1943.

Mills, Wanda I, “The Complexity of Gender: A Caribbean Perspective.” *Planners Network* No.130, 1998(July/August)(http://www.plannersnetwork.org/publications/1998_130/mills.htm).

Naomi Norquay, “Iand Forgetting.” *Oral History Review*, 26/1, 1999(Winter/Spring).

Summerfield, Penny, *Reconstructing Women's Wartime Lives: Discourse and subjectivity in oral histories of the Second World War*.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8.

Thelen, David, ed., “Special Issue: Memory and American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75, No. 4, 1989.

● 투고일 : 2005. 4. 21.

● 심사완료일 : 2005. 11. 30.

● 주제어(keyword) : 전쟁경험(war experiences), 학살기억(genocide memory),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
여성유족(the female survivors)